전남선수단이 7일 인천 청룡정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궁도 일반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선수단은 은메달을 기록했다. /전남체육회 제공

전웅태 근대5종 '금'·전남 궁도 종합우승

광주 근대5종 단체전도 전웅태·황우진 호흡 동메달
백수연 수영 평영 200m·이효진 레슬링 G63kg급 금
전남기술과학고 펜싱 여고부 사브르 단체 3연패 위업

2020년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광주시청 전웅태(24)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가뿐히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웅태는 7일 한국체대에서 열린 근대5종 남자일반부 개인전에서 1,465점을 기록, 정진화(울산 1,451점)와 김우철(한국체대 1,446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6년 이후 3년 만의 전국체전 개인전 우승이다.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전웅태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개인전 13위를 했고 단체전과 계주(4종)에서만 은메달 2개를 획득했었다.

당시 광주선수단에 보탬이 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던 전웅태는 올해 체전에서 명예회복을 노렸고, 개인전 금메달로 광주시청 소속으로는 첫 체전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6일 치른 수영과 펜싱에서 539점을 얻어 두 종목 합계 2위에 올랐던 전웅태는 이날 승마까지 소화하며 중간 순위 11위로 밀렸으나 마지막 종목인 레이저건(사격과 육상)에서 짜릿한 역전극을 연출했다.

황우진(29·광주시근대5종연맹)과 함께 호흡을 맞춘 근대5종 단체전에서는 동메달을 기록했다.

전웅태와 황우진은 2,854점을 기록, 울산선발(2,891점), 인천광역시체육회(2,870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특히 현재 공익근무중인 황우진은 새벽과 야간, 그리고 휴일을 이용해 틈틈이 훈련에 매진, 전웅태와 함께 값진 동메달을 합작해 주목을 받았다.

광주시청은 근대4종 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성진수, 이중협, 이현웅이 나선 광주시청은 경기선발(3,404점), 한국체대(3,401점)에 이어 3,365점으로 3위에 올랐다.

광주시청 전웅태(왼쪽)와 광주근대5종연맹 황우진이 7일 한국체대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근대5종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시청 근대5종팀 제공

단거리 간판주자 김국영(국군체육부대)은 남자일반부 200m에 출전해 아쉽게 은메달을 차지했다. 김국영은 21초04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한 신민규(서울)보다 0.07초 뒤졌다.

백수연이 평영 200m에서 금메달을, 광주체고 이효진(3년)은 레슬링 G63kg급 금메달을 거머쥐었고 광주서구청은 여자일반부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금호고는 축구 남고부 동메달을 획득했다.

소프트볼에 참가한 명진고도 추첨 승의 행운을 잡고 2회전에 진출했다. 명진고는 여자고등부 1회전에서 진주외국어고(경남)를 만나 접전을 예상했으나 우천으로 경기규칙에 따라 추첨을 통해 승부를 가려야 했다. 추첨에서 승리를 가져간 명진고는 9일 오전 11시 준결승에 들어간다.

전남은 궁도에서 종합우승 소식을 전했다.

궁도 전남선발은 7일 인천 청룡정에서 열린 단체전에서 106점을 기록, 같은 점수를 기록한 광주선발에 비교전승을 거둬 금메달을 획득했다. 고민구(고흥흥무정)가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전남은 종합순위 1위에 올랐다. 궁도의 종합우승은 지난 2008년 89회 전국체전 이후 11년만의 쾌거다.

펜싱에서는 전남기술과학고가 여고부 사브르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전남기술과학고는 대전송촌고와의 결승에서 45-36으로 승리,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전남은 이날 사격에서 김준홍(KB국민은행)이 속사권총 금메달을 획득했고 우슈에서도 박재희(순천북성고)가 태극권전능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체고 김안나가 육상 여고부 200m에서, 그리고 전남도청 카누팀이 은메달 2개를 보탰다.

축구 고등부에서는 광양제철고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진화 기자

류현진 5이닝 2실점 통산 3승
다저스 10-4로 이겨 2승1패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팀의 운명이 걸린 포스트시즌(PS) 선발 등판에서 호투해 역전승의 발판을 놓고 올해 가을 잔치 첫 승리를 수확했다.

류현진은 7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2019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5전 3승제) 3차전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안타 4개를 맞고 2점을 줬다.

1회 후안 소토에게 2점 홈런을 맞은 게 뼈아팠을 뿐 나머지 이닝에선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1위의 위기 관리능력을 뽐내며 더는 실점하지 않았다.

류현진은 1-2로 끌려가던 6회 초 포수 러셀 마틴이 2타점 2루타로 전세를 3-2로 뒤집자 타석에서 대타 크리스 테일러로 교체됐다.

다저스는 워싱턴 마운드를 두들겨 6회에만 7점을 뽑은 끝에 10-4로 이겼다.

역전 쇼의 주인공 마틴은 9회에는 좌월 투런 아치를 그려 쐐기를 박았다.

다저스는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앞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 4승제) 진출에 1승을 남겼다.

절체절명의 순간 팀에 귀중한 승리를 안긴 류현진은 포스트시즌 통산 3승(2패)째를 수확했다.

류현진은 2013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상대로 한 NLCS 3차전(7이닝 무실점), 작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벌인 NLDS 1차전(7이닝 무실점)에서 각각 승리를 안았다.

그는 가을 잔치 통산 평균자책점도 4.11에서 4.05로 낮췄다.

류현진은 공 74개를 던져 48개를 스트라이크로 꽂았다. 삼진은 3개를 낚았고, 볼넷 2개를 줬다.

다저스와 워싱턴의 NLDS 4차전은 8일 오전 7시 4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U-22 축구대표팀 평가전 준비
부상 이지솔 대신 장민규 발탁

2020년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22세 이하(U-22) 축구 대표팀이 7일 경기도 화성에서 소집됐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U-22 대표팀 선수 26명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에 모여 우즈베키스탄과 두 차례 평가전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소집 첫날 비가 내리는 바람에 야외 훈련 대신 실내에서 체력 훈련으로 대신했다.

소집 대상 선수 중 이지솔(대전)이 소속팀 경기 중 발목 인대를 다치는 바람에 장민규(한양대)를 대체 발탁했다.

선수들은 소집 이틀째인 8일에는 화성종합경기타운 보조경기장에서 본격적인 담금질을 시작한다.

U-22 대표팀은 11일 오후 8시 30분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14일 오후 8시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잇달아 친선경기를 벌인 뒤 15일 해산한다.

김학범 감독은 앞선 인터뷰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AFC(아시아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우승팀이며, 이번 대회에 같은 조에 속한 만큼 훌륭한 실전 상대"라며 "경기 경험을 통해 선수들을 점검하고 전술을 가다듬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선대 전국체전 승승장구

육상 모일환·태권도 이기범 등 금빛 레이스
검도 은메달 배구 동메달 확보 등 단체종목 선전

조선대학교 선수단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승승장구, 메달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지난 5일 태권도 이기범(2년)의 금메달을 시작으로 6일 육상에서 모일환(체육학과 2년)과 김명하(체육학과 1년)가 우승 소식을 전했고, 7일 모일환이 2관왕에 올랐다.

모일환은 7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육상 남대부 200m 결승에서 20초26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두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400m에서는 46초70으로 우승하며 대회 4연패를 했다. 예선에서는 46초68을 기록해 대회신기록도 수립했다.

김명하는 멀리뛰기에서 개인신기록(7m52)을 수립하며 전국체전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기범은 태권도 63kg이하급 결승에서 양태양(한국체대 4년)에 11-4 판정승을 거뒀다.

이외에 김정훈(체육학과 1년)이 양궁 남대부 30m에서 은메달(357점)을 획득했으며 한서희(태권도학과 3년)가 태권도 여대부 62kg이하급 결승에서 장은지(경희대 2년)에 5-11 판정패하면서 은메달을 기록했다.

또 김유라(태권도학과 2년)가 태권도 여대부 46kg이하급에서, 김다솜(체육학과 2년)·채희수(체육학과 3년)는 배드민턴 여대부 개인복식에서 동메달을 기록했다.

단체종목의 선전도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선대학교가 7일 서울 성남고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전 검도 남자대학부 은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육회 제공

검도팀은 7일 성남고등학교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서울 선발과의 결승에서 0-1로 아쉽게 패하면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조선대 검도팀은 지난해 제99회 체전에서 동메달을, 제97회 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최근 꾸준한 경기력을 이어오고 있다.

배구팀은 1회전에서 경북 구미대를 3-0(25-10 25-12 25-17)으로, 7일 8강에서 대전 충남대를 3-2(226-24 20-25 25-16 17-25 16-14)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 동메달을 확보했다.

농구팀도 지난 6일 동국대를 56-50으로 꺾고 1회전을 통과했다. 조선대 농구팀은 지난 2015년 제96회 때 동메달 이후 3년 연속 무득점이었으나 올해 체전에서 값진 첫승을 기록하며 부활을 예고했다.

사전경기로 열린 핸드볼과 하키도 각각 182점과 208점(가점)을 기록했다.

이계행 선수단장은 "조선대 선수단이 이번 100회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체전이 끝날 때까지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보성군청 문유라 체급 내려도 실력은 여전

역도 여자일반부 64kg급 인상·합계 각각 동메달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역도 동메달리스트 문유라(29·보성군청)가 체급을 내려서도 실력을 입증했다.

문유라는 7일 서울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여자일반부 64kg급에서 인상 99kg, 용상 118kg, 합계 217kg을 기록, 인상과 합계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문유라는 주니어시절인 2008~2010년 63kg급(한국주니어신기록 수립)에 출전한 이후 지난해까지 줄곧 69kg급에 출전해왔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동메달도 69kg급에서의 성과다.

하지만 최근 세계역도연맹이 일부 체급을 없앴는데 하필 문유라의 체급인 69kg급이었다. 문유라는 고민에 빠졌다. 체급을 올리는 것이 더 쉬웠지만 기록이 문제였다. 게다가 문유라는 지난해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을 치른뒤 휴식기간동안 급격히 체중이 늘어 평소보다 10kg 이상이 증가한 상태였다. 문유라는 고민 끝에 결국 한체급 낮춰 64kg급에 도전키로 했다.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늘어나는 일반적인 예에 비춰 다소 이례적인 케이스로 체급을 낮추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결심을 굳힌 문유라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체중을 조절하며 체전을 준비했다.

체급을 낮췄어도 문유라는 메달을 놓치지 않았다.

문유라는 인상 1차시기에서 93kg에 성공한 뒤, 2차 시기에서 96kg, 그리고 3차 시기에서 99kg을 들어올려 동메달을 확정지었다.

용상에서는 2차 시기에서 118kg을 기록한뒤 3차 시기에서 120kg에 도전했으나 실패, 6위에 그쳤다. 하지만 합계에서 217kg이 돼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해 용상과 합계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던 문유라는 올해 인상과 합계에서 메달을 거머쥐었다.

문유라는 "체중 조절을 하느라 고생했다"며 "이번에 체급을 낮춰 나왔는데도 동메달을 따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김용철 보성군청 감독은 "(문)유라가 짧은 시간에 체중을 줄이면서 허리가 안 좋은 상태였다. 원래 용상이 주종목인데도 허리 때문에 마지막 3차 시기에 힘을 쓰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체급을 낮춰서 나온 첫해 메달 획득은 정말 잘 한 것이다. 내년을 기대해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